제3강 박완서 「나의 가장 나종 지니인 것」

(1교시)

박완서 「나의 가장 나종 지니인 것」
《상상》(1993년 가을호), 1994년 제25회 동인문학상 수상.

1. 작가연보
1931년 경기 개풍 출생. 1950년 서울대 입학, 전쟁으로 중퇴. 1970년 장편 『나목』여성동아 공모에 당선. 한국문학 작가상, 이상문학상, 대한민국문학상, 이산문학상, 대산문학상, 만해문학상, 황순원문학상 수상. 보관문화훈장 수여.

창작집 :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1976), 창 밖은 봄 (1977), 배반의 여름 (1978), 도둑맞은 가난 (1981), 엄마의 말뚝 (1982), 서울 사람들 (1984), 꽃을 찾아서 (1986), 저문 날의 삽화 (1991), 나의 아름다운 이웃 (1991), 나목 (1994), 한 말씀만 하소서 (1994), 너무도 쓸쓸한 당신 (1998) 등 다수
수필집 :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 (1977), 혼자 부르는 합창 (1977), 살아있는 날의 소망 (1982), 나는 왜 작은 일에만 분개하는가 (1990), 어른노릇 사람노릇 (1998), 아주 오래된 농담 (2000) 등 다수

2. 줄거리
민주화 시위 과정에서 대학생 아들을 잃고 친구와 가족과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나'는 손위 동서와 통화를 하면서 아들에 걸었던 자신의 삶, 아들을 잊기 위해 몸부림치는 현실을 주절주절 늘어놓는다. 아들에게서 헤어나지 못하는 '나'를 위해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 동창의 집으로 이끈다. 동창은 교통사고로 뇌와 척추를 다치고 하반신이 마비된 데다 치매까지 겪는 아들과 단 둘이 살고 있다. 치료비로 가산을 탕진한 지 오래됐다. 동창은 '나'가 보는 앞에서 아들에게 '아이구 이 웬수, 저놈의 대천지 웬수'라고 부르고, '나'가 사간 깡통 파인애플을 아들의 입에 넣어주며 '이 웬수야, 어서 처먹고 뒈져라'라고 말한다. 동창은 아들을 공기 굴리듯 굴린다. 욕창이 생길까봐 하루에도 여러 번 하는 일이란다. '아이고, 웬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수 무겁기도 해라. 천근이야, 천근. 니가 내 앞에서 뒈져야지 내가 널 두고 뒈져봐라, 나도 눈을 못 감겠지만 니 신세가 뭐가 되나.' 악담도 지나치다. 그런데 환자를 도우려고 '나'가 손을 내밀자 이상한 괴성을 지른다. 갑자기 난폭해져 미친 듯이 군다. 그러자 동창은 '이 웬수 덩어리가 또 효도하네'하며 '나'가 손을 대지 못하게 한다. 악만 남은 동창의 얼굴에 씩씩하고도 부드러운 자애를 '나'는 비로소 알게 된다.

3. 플롯구조
현재-과거-현재

4.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5. 문체의 특징
모노드라마를 보듯 한 어머니의 심리를 잘 드러내는 문장.

6. 묘사력
- 요전에 밖에서 집에다 전화 걸 일이 있었는데 전화 카드를 집어넣고 나서 숫자판을 누르려는데 집 전화번호가 생각나지 않지 뭐예요. 황당하더군요. 어둑어둑할 무렵이었어요. 차들은 헤드라이트를 켜고 질주하고, 길 건너 상가엔 네온지 켜지기 시작하더군요. (20p)
- 아들에게 파인애플을 세 조각이나 먹이고 난 친구는 우리가 보는 앞에서 아들이 깔고 있는 널찍한 요 위에서 아들을 공기를 굴리듯이 굴리기 시작했어요. 정말이지 믿을 수 없을 만큼 신기한 묘기였어요. (…) 이러면서 병자를 요리조리 굴리고 주무르는데 그 말라빠진 노파가 어디서 그런 기운이 나는지, 거짓말 안 보태고 꼭 공깃돌 갖고 놀 듯 하더라니까요. 아이들 말짝으로 환상적이었어요. (…) (41p)

7. 에피소드의 적절성
<형님>
- 형님은 나빠요. 절벽 같아요. 내가 뛰어내리지 않으면 누가 떠다밀기라도 할 것 같은 절벽 말예요. (17p)

<'나'의 건망증>
- 그저께가 증조모님 제사였다구요? 이를 어쩌나. 그만 깜박했어요. (18p)
- 요전에 밖에서 집에다 전화 걸 일이 있었는데 전화 카드를 집어넣고 나서 숫자판을 누르려는데 집 전화번호가 생각나지 않지 뭐예요. (20)

<딸들>
- 엄마, 해도 너무해. 이제 그만해. 오빠 죽은 지 벌써 7년이예요. (22p)
- 창희 년이 내 방까지 따라 들어와 따지는 거에요. (22p)

<주변 인물들>
- 내가 창환일 잃고 나서 친척이고 친구고 멀쩡하게 아들 잘 기른 사람들이 나한테 괜히 미안해하는 거, 나 알아요. (24p)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 그런 명애도 즈이 아들 장가 들일 때는 나한테 쉬쉬하더라니까요. (25p)
- 우리 친정 조카 얘긴 형님도 종종 들으셨죠. 그 애가 장가 갈 때는 창환이 잃은 지 일년 안이기는 했지만 글쎄 친정 식구들이 하나같이 이 하나밖에 없는 고모가 오지 말았으면 하는 눈치더라구요. (26p)
- 형님만 해도 창석이 장가 들일 때 저한테 얼마나 신경을 썼어요.(27)

<질투>
- 친구 아들 흉보기 (25p)
- 창석이가 나무랄 데 없는 아이란 건 저도 인정해요. 그러나 우리 창환이하곤 그릇이 다른 걸 비교가 되나요. (28p)
- 창석이가 대학 들어간 해가 언제예요? 바로 80년 아니에요. 우리 창환이도 창석이보다 삼 년 뒤에 같은 대학에 들어갈 때만 해도 창석이처럼 공부밖에 모르는 아이였죠. 그러나 우리 창환이는 캠퍼스의 최루탄 냄새를 괴로워했어요. 우리 창환이는 마음으로 더 많이 괴로워했다구요. 그래요, 우리 창환이가 운동권이 아니었다는 건 형님 말이 맞는지도 몰라요. (28p)
- 그놈의 쇠파이프가 눈이 멀어도 분수가 있지 앞장 선 열렬한 투사들 다 제쳐놓고 하필 우리 창환이였을까, 하구요. 그러나 죽음은 어차피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인 거 아닌가요? (29p)

<창환이를 잃고 나서 일어난 변화>
- 창환이 잃고 나서 저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뭔 줄 아세요. 그때까지 중요하게 생각해 온 것이 하나도 안 중요하지고, 하나도 안 중요하게 여겨 온 것이 중요해진 거예요. (30p) 이를테면 전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중요했는데 이젠 내가 보고 느끼는 내가 더 중요해요. (31p)
- 그전엔 장만하는 게 중요했는데 이젠 버리는 게 더 중요해요. (31p)
- 전에는 형체가 있어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그 후엔 아니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걸 온종일 좇을 적도 있어요. (35p)

<명애>
- 명애가 저더러 같이 문병 갈 데가 있다는 거예요. (38p)
- 저는 별안간 그 친구가 부러워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인물이나 출세나 건강이나 그런 것 말고 다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생명의 실체가 그렇게 부럽더라구요. (42p)

<통곡-존재의 확인>
- 저는 드디어 울음이 복받치는 대로 저를 내맡겼죠. (42p)
- 전 그 울음을 통해 기를 쓰고 꾸민 자신으로부터 비로소 놓여난 것 같은 해방감을 느꼈어요. 이제부터 울고 싶을 때 울면서 살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꾸미는 짓도 안 할 거구요. 생때같은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서 소멸했어요. 그 바람에 전 졸지에 장한 어머니가 됐구요. 그게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될 수가 있답니까. (43p)

8. 주제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울음을 통해 가장 자연스럽고 솔직한 자아와 만나게 되는 나

9. 제목

「나의 가장 나종 지니인 것」은 김현승의 시 「눈물」중 한 부분이다. 나의 가장 나종 지니인 것은 순수한 슬픔의 정서인 눈물인 것이다.

눈물

김현승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全體)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 제,

나의 가장 나아종 지니인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듦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사용함으로써 모노드라마처럼 화자의 심리변화를 세밀하게 그려내고 있다. 마치 독자를 화자처럼 느끼게 하는 흡입력을 가지고 있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